

사설

취업문제에 근본적·장기적 대처 절실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된 대로, 2011년 8월 및 2012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대학교의 취업률은 47.7%였다. 전년도의 50.9%에 비해 3.2%가 하락한 것이다. 국립대 평균 53.0%보다 낮으며 순위는 23개 국립대학 중 19위이다.

이러한 부진한 취업률 통계에 따라 대학본부는 여러 가지 장·단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학생 경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취업상담 및 입사지원 컨설팅, 진로 및 취업 교과목 운영, 취업캠프 개최, 취업동아리 지원, 국내 인턴십 및 현장실습 지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취업 추천 및 채용 설명회 개최,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운영, 일자리 박람회 및 각종 행사 개최 등이 취업자원을 위해 마련한 사업들이다.

모두 좋은 프로그램이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본다. 대학당국은 취업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취업률은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크게 상승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입학 때부터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만 훌륭한 인재로 키워낼 수 있고 자연적으로 취업률 또한 향상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대학생활에서 그러한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교수, 재학생 선배, 동문 선배, 사회저명인사 등의 조언을 들으면서 대학생활의 설계, 나아가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본부는 오리엔테이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학생경력관리 프로그램은 좀 더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경력관리 프로그램은 학생이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모든 경력 사항인 학업성적, 외국어능력, 전공자격증, 정보화능력, 사회봉사활동, 해외연수, 인턴, 지도교수 면담실적 등을 점수화하여 학교에서 인증하여 주는 제도이다. 재학년부터 진로 목표 설정과 취업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공 외에도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학생은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교수는 입력된 자료를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학생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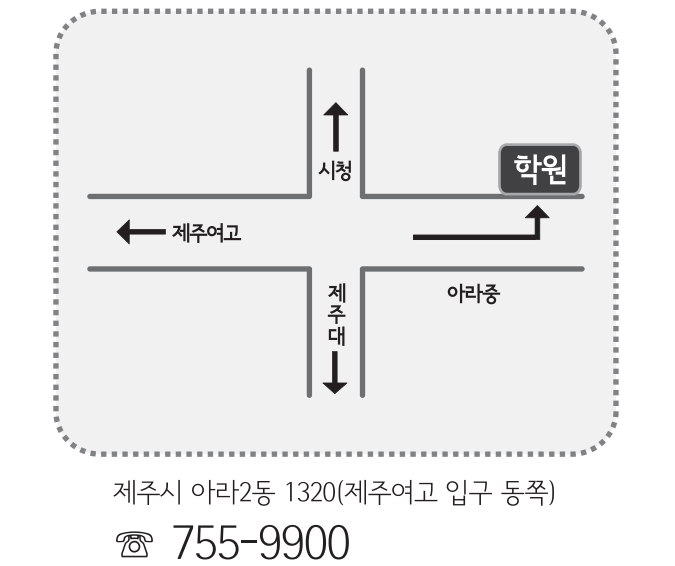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하영드림을 통해 학생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은 30%도 못 된다고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들 중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현재로서는 별 효용성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프로그램에 제대로 입학하지 않는 학생은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성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발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학의 혁신을 위해선 때로는 강력한 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대학본부의 과감한 추진을 기대한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영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단과대 학생회 20일 선출… 사범대는 내달 5일 보궐선거

경선 치른 생명대 ‘상상이상’·공과대 ‘청춘차렷’ 당선 수의대 투표율 91.2%로 최고… 야간강좌부 가장 낮아

2013학년도를 이끌어갈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지난 20일 치러진 가운데 경선을 치른 생명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에서 각각 ‘상상이상’(정·강현승, 부·이지성)과 ‘청춘차렷’(정·김민철, 부·윤의식)이 당선됐다. 다른 단과대학은 단선으로 치뤄져 찬반투표가 이뤄졌으며, 사범대학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어 다음달 5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다음은 단과대학 선거 결과. △인문대학 ‘제법인대’ 정·원일권(영어영문학과 3), 부·현우진(사회학과 2) 후보가 총유권자 1155명 중 765명(66.23%)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634표(82.88%), 반대 126표(16.47%), 무효 5표(0.65%)로 당선됐다. △사회과학대학 ‘율인원’ 정·이현석(법학과 3), 부·문준연(언론홍

보학과 2) 후보가 총유권자 754명 중 485명(64.32%)이 투표, 찬성 407표(83.92%), 반대 76표(15.67%), 무효 2표(0.41%)로 당선됐다. △경상대학 ‘가치있는’ 정·안진효(경제학과 3), 부·오경수(경영학과 2) 후보가 총유권자 1767명 중 1038명(58.74%)이 투표, 찬성 889표(85.65%), 반대 135표(13.01%), 무효 14표(1.34%)로 당선됐다. △생명자원과학대학 ‘상상이상’ 정·강현승(식물자원환경전공 3), 부·이지성(산업응용경제학과 3) 후보가 총유권자 524명 중 476명(90.84%)이 투표한 결과, 총 250표(52.52%)를 획득해 219표(46.01%)에 그친 ‘품격있는’ 정·현명훈(응용생명공학전공 3) 부·이혁신(원예환경전공 3)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무효표는 7표(1.47%)로 나타났다.

재학생 취업서포터즈 창설… 15일 발대식

2·3학년 8명으로 구성 취업홍보·구직활동 지원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 취업서포터즈 ‘JOB ATOZ(A TO Z, A에서 Z까지)’가 지난 15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취업서포터즈는 2·3학년 재학생 8명으로 구성됐다.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이들은 내년 2월15일까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홍보 △재학생 구직활동 지원 △취업전광판과 SNS를 통한 취업전략본부 홍보 등을 벌인다. 이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시 우선권 부여



허항진 총장, 임재운 취업전략본부장, 취업서포터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발대식을 가졌다.

등 혜택이 주어진다. 취업서포터즈는 △배영준(전자공학과 3) △송용우(통신공학과 2) △고서진(기계공학전공 3) △정석원

(관광경영학과 3) △이지혜(컴퓨터공학과 3) △고유라(일어일문학과 3) △강형목(사학과 3) △윤혜상(광개달학과 2) 등 총 8명이다.

필리핀 대학 단기파견 교류수학생 모집

26일부터 5일간 10명 모집… CMIC서 6주간 교육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는 2012년도 동계방학 필리핀 대학 단기파견 교류수학생 10명을 26일부터 5일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2012학년도 신입생인 재학생으로 토익(TOEIC) 500점 이상 점수 소지자여야 한다. 선발된 자에게는 일반선택 4학점이 부여된다.

학생들은 다음달 27일부터 6주간 CMIC(필리핀 바기오 소재)에서 수학하게 된다. 참가학생은 11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 희망학생은 지원서 1부, 공인 영어성적증명서 1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1부(외국인 학생인 경우), 여권사본 1부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754-2197-8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과정 보고회 개최

인문대학(학장 임동춘)은 16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문화콘텐츠와 인문계열 전공자의 취업전략’을 주제로 문화콘텐츠 기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정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사업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이 소개됐고, 임재운 제주대 취업전략본부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분야별 담당교수, 외부강사,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문화콘텐츠 기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영상방송인력 양성트랙, 출판홍보인력 양성트랙,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인력 양성트랙, 사회복지인력 양성트랙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은 인문학적 사고를 가진 학생들에게 관련된 실무적인 지식을 전달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3년제 진행되고 있다.

2013학년도 대학원 일반전형 신입생 모집

23일까지 인터넷 접수

입학관리과에서는 4일간 일반대원생접수는 오는 23일 5시까지 유웨이 어플라이(인터넷접수 www.uwayapply.com)를 통해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오는 28일 18시까지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을 통해 제

출한다. △수의과대학 ‘ILOVEVET’ 정·나경석(수의학과 1), 부·최병수(수의학과 1) 후보가 총유권자 273명 중 249명(91.21%)이 투표, 찬성 220표(88.35%), 반대 20표(8.03%), 무효 9표(3.61%)로 당선됐다.

△간호대학 ‘힐링You’ 정·류승희(간호학과 2) 부·허다솜(간호학과 2) 후보가 총유권자 244명 중 217명(88.93%)이 투표한 결과, 찬성 150표(69.12%) 반대 50표(29.95%) 무효 2표(0.92%)로 당선됐다.

△예술디자인대학 ‘M·A·D·E’ 정·고미정(한국화전공 2) 부·한주연(한국화전공 2) 후보가 총유권자 448명 중 308명(68.75%)이 투표, 찬성 285표(92.53%) 반대 21표(6.82%) 무효 2표(0.65%)로 당선됐다.

△야간강좌부 ‘우리두리’ 정·고영진(야 관광경영 2), 부·이우준(야 관광경영 2) 후보가 총 유권자 183명 중 83명(45.36%)이 투표, 찬성 74표(89.16%), 반대 9표(10.84%)로 당선됐다. 김동현 기자

제일본 관서도민 청년회

16일 도서기금 60만엔 기탁

제일본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청년회(회장 박명인)는 지난 16일 제주대학교를 방문, 도서기금으로 60만엔(815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도서기금 전달식에는 허항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본부 주요 보직교수와 박명인 회장 등 13명의 관서도민청년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허항진 총장은 “청년회가 지난 1971년부터 해마다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에 필요한 도서나 도서기금을 기증해 온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년회 제주방문단은 이어 중앙도서관을 견학, 40여년간 기증·비치 돼온 도서의 배가 및 관리 상황을 둘러봤다.

또 중앙도서관 3층 국외서 자료실 내 ‘제주청년회기증도서’ 서가를 둘러보기도 했다. 청년회는 1971년부터 단행본 6,668권에 해당하는 총 2,674만223권 상당의 도서 및 기금을 제주대 도서관에 기증해 오고 있다.

사람들

오성종 교수 참여 논문

‘NATURE’ 지 게재

오성종(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가 공동연구로 참여한 ‘돼지유전체 완전 해독 결과’ 논문이 15일 ‘NATURE’ 인터넷 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현해남 교수 저서 우수도서 선정

현해남(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연환경전공)가 펴낸 ‘만화로 이해하는 흙과 비료 이야기’가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됐다. 이 책은 현 교수가 10여년간 농민 교육용으로 그려온 만화를 종합해 2권으로 엮은 것이다. 토양과 비료와 관련된 지식을 집대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트란 안 타오씨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트란 안 타오(응용생명학과 석사과정·베트남)씨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논문 제목은 ‘The 2’ 3’ - dimethoxyflavanone Induces Both Intrinsic and Extrinsic Apoptosis in Breast Cancer Stem Cell by Regulation of p53 Activity’이다.



김미성씨 우수연구상 수상

김미성(경영학과 박사과정)씨가 지난 16일 대전 삼성화재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2012 소비자분야 통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Doctoral consortium 부문 마케팅 분야에서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문소정씨 논문발표장려상 수상

문소정(전산통계학과 3)씨가 지난 16일 경북대에서 열린 추계 한국대이팅정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생부문 논문발표장려상을 수상했다. 논문 제목은 ‘데이터마ining을 이용한 대학신입생의 불안 심리요인 탐색’이다.



백록학술상 공모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제주대신문이 개교 제60년과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해 제32회 백록학술상을 공개모집한다. 제주대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중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분야의 학술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당선작은 50만원이 가산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언론미디어센터(전화 064-754-2277)로 문의하면 된다.

교수신문



김문두
의학과 교수

“

우울증 예방 위해 스트레스를

적절한 대처능력 개발해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의료지원시스템 통해

사회가 해결해야 마땅하다

”

동문칼럼 · 공무원 친구들 이야기

경직된 조직 문화 적응 힘들어... 과연 최고의 직장일까



좌동철
제주일보 사회부 기자
무역학과 94학번

인생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인생역전은 아니더라도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3번의 기회 중 가장 중요한 하나라고 여겨진다. 그럭저럭 학점을 때우고 술 마실 핑계만 찾아다녔던 필자도 1999년 대학 4학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한해 전 IMF 외환위기가 터졌어도 설마 했는데 막상 졸업을 앞두고 취업할 곳이 없었다. 토익 점수가 형편없었고, 내세를 만한 것도 없었다. 중권사에 응시했다가 영락없이 퇴짜를 맞은 후 중앙도서관에서 신문을 보다 기사를 뽑는 광고를 우연히 마주했다. 당시 웬만한 기업은 토익 점수를 요구했는데 신문사는 필기시험과 논술로 대체했다. 운이 따랐는지 합격을 했다. 어쨌거나 합격을 못했으면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을 것이다. 3학년 때까지 '9급 대비' 수험서를 들고 다니던 학우를 보면 '9급 공무원 하러 대학에 왔다'며 한

심하게 봤는데, 4학년이 되면서 착실하게 준비했던 그들이 부럽기만 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국어·영어·행정학 등 수험서를 파고들었던 친구들은 현재 도청과 시청, 검찰,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 다양한 공직에 진출했고,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정년이 보장되므로 공직에 평생 몸 바친 후퇴직할 것이다. 이 중에는 빨라야 2년, 길게는 6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린 친구들도 있었다. 노랑진에서 1년 이상 학원과 고시촌을 오가며 '서울물' 먹은 경험은 기본 스펙으로 따라다녔다. 늦깎이로 합격한 친구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은 왜 다녔지? 4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으면 7급은 따냈을 건데'라며 자조 섞인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어느덧 이들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거듭하며 공직사회의 실무를 책임지게 됐다. 그런데 기자인 필자에게 고충을 털어놓을 때가 있다. 상명하달식 업무 처리, 업무와 같은 승진 경쟁, 이간 아니데도 찍히기 싫어 '예'라고 해야 하는 경직된 조직문화, 뒷사람 눈치 보느라 주말과 휴일에도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하는 마음고생 등,

남들이 부러워하고 존경을 받는 공무원, 제주의 1등 사윗감인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고민과 고충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고 상사를 잘 따라다 줄 타기를 못하면 주류에서 밀려날 것 같은 소외감이 든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은 견제에 조심하고, 때론 아부도 적절히 떨어야 한다. 요즘 대학가는 '공시족' (공무원 시험 준비족)이 도서관을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 찾았던 제주대 캠퍼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트북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예전보다 더 두꺼워진 수험서를 독서대에 놓은 학생은 100% 공시족이었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선 1년은 부족하지만, 젊은 청춘들은 공무원이 되겠다고 불나방처럼 도서관에 모여든다고 한다. 여기에 삼수, 사수, 장수생도 한층에 낀다. 족히 60살까지 보장되는 정년, 깎이지도 않고 꼬박 꼬박 나오는 월급과 보너스를 주는 직장에 가기 위해선 추리닝에 슬리퍼로 무장하고 도서관이든 절이든 3년은 참을 수 있다는 각오다. 지금도 제주도에선 공무원은 최고의 직업, 관청·공기업은 최고의 직장으로 꼽힌다. 하지만 적

성은 강그러지 무시하고 자의만 타의만 공무원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좀 그렇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동창회 모임에서 모두 꿀 먹은 벼어리가 될 때 2차 술값을 턱 하니 책임지며 청송을 받는 친구들이 더러 있다. 대체로 공무원은 아니다. 건설·금융·보험·관광·통신·컴퓨터·디자인 등 다양한 업종에 몸담고 있고, 39살 밖에 안 됐는데 벌써 2000cc 차량을 몰고 다닌고 있다. 젊은 청년들의 직업선택은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다. 그들이 진취적 기상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일에 투신하여 새로운 창조와 발전을 거듭해갈 때 우리 사회는 분명 진일보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공무원 열풍은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는 무관하게 생계유지에 치우쳐 한 가지 직업을 집중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커다란 남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평생 직업은 자아를 실현하여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독자기고

캠퍼스 환경에도 관심 가져야



김정석
행정학과 2

지난 5월 24일 제주대는 그린캠퍼스 선포식을 가지고 그에 따른 부지 환경을 조성 중이다. 그린캠퍼스는 환경부에서 주도하는 친환경 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현재 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대학들 대부분이 녹지조성 및 탄소배출량 감소 같은 건축이나 교통 부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캠퍼스의 전기와 물소비량을 줄여 장학금을 늘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그린캠퍼스를 향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대학생활의 세세한 영역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환경에 대해 별 의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의 말처럼 삶은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다. 그러니 지구에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은 여간해서는 내기 힘들다. 힘을 쏟아 부어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2학기 과제들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어쩌다 겨우 짬을 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은 암울하고 실천하기에는 불편하고 귀찮아 보인다. 그래서 나 하나 줌 없이 살아도 별 문제가 있을까 싶다. 나 하나가 있으면 큰일나는 일이 훨씬 많은데 말이다. 하지만 별 문제가 있는데, 그 같은 생각을 어지간한 사람들은 전부 하고 있다

는 거다. 그렇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환경을 가지고 국성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모여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놀려먹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상식에서 환경운동가는 초등학교 아니면 먹고 살만한 부르주아들이다. 북극 해빙의 면적이 지난 21년 관측역사상 최소치를 기록하고, 지구 평균 기온이 10년 사이에 1도가 상승했고 정부가 나서서 지속 가능 개발을 외치고 친환경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현재도 말이다. 달라진 건 없다. 물론 우리의 제주도는 청정지역이고 슬쩍 봐도 제주대는 대부분 녹색이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에 대해 느긋하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일 아니다. 그린캠퍼스를 학교의 브랜드까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정사업의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 역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환경에 관한 무관심만큼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린 캠퍼스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생이다. 대학원까지 진학할 것이 아니라면 대학 생활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잡한 삶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 한 번 생각할 짬을 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 그렇기에 끝까지 가서 어떤 결론을 내든지 우리는 환경에 대해, 지구에 대해 이 곳에서 될 수 있으면 자주 생각해 봐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는 그별 기회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은 머리가 아니라 호흡으로 환경에 대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그린캠퍼스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아름
정치외교학과 2

캠퍼스를 오고 가면서 교내 총선거의 후보자를 알리는 벽보를 보게 되었다. 후보자의 약력과 간단한 공약, 슬로건 등이 적혀 있는 벽보였다. 그런데 이 벽보 내용 중 한 부분을 보면서 이 벽보가 교내 총선거에 있어서 잘못된 선거 문화를 퍼뜨리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게끔 하는 문구가 있었다. 바로 후보자의 출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적은 부분이다. 국내에서 열리는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출신 학교가 후보자의 자질을 논할 때 하나의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교내에서 치러지고, 교내에서 활동하게 되는 자를 뽑는 선거라면 출신 학교를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이 후보로 등록할 수 있기에 후보 등록 요건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내용은 기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출신 학교를 적는 것은 교내 총선거의 후보자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내 총선거 벽보에 출신 학교를 적는 것은 나이가 같은 대학 내에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해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에 각각 한 팀만 출마하게 되어 단선으로 치르다 보니 그

러한 경향이 줄었다. 하지만 작년을 보자면 출신 학교별로 국명하게 후보 선호도가 갈리는 학연 중심의 선거가 진행됐다. 우리 학교에는 제주도에 학생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과 유학생들도 있기에, 이러한 행태는 타 지역 학생들을 간접적으로 소외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잘못된 질서가 '대학'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작년에 처음 교내 총선거를 지켜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점이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한 선거 홍보였다. 실제로 출신 고등학교를 내세운 홍보에 넘어가는 학우들의 모습에 거부감이 들기도 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 때문이겠거니 하며 넘기려고 했지만, 다른 지역 출신자로서 제주 학생들 사이에서 간접적인 소외감을 느꼈고 민주 운동의 상징이었던 '대학'이 잘못된 선거 문화에 물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까웠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일까지 선거철로 시끌벅적한 나날을 보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앙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 및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에서 후보자를 홍보하는 우렁찬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었다. 이제는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대학에서만큼은 '학연과 지연' 중심의 선거 문화를 지양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내년에는 더욱 공정한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는 풍경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외국어교육원 에세이 최우수 수상작

영어·학점·장학금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김푸름
영어영문학과 4

우연히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게 된, 외국어교육원 수강성공사례 공모를 알리는 공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외국어교육원이 있지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웠던 나와 내 남자 친구는,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알려보자는 생각으로 공모전에 참여했다. 많은 친구들이 영어 공부에 대해 내게 물어볼 때마다 나의 대답은 늘 같았다. 학교에 있는 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교원) 강의를 들어보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서, 외교원 수업에 참여해보고 나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09년 12월 겨울은 내게 유난히도 춥게만 느껴졌다. 친구들은 어느새 졸업을 앞두고, 하나 둘 사회인으로 나설 때, 나는 복학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두려웠다. '영어영문학과인데 영어를 잘 못하더라'는 말을 들을까 겁이 났고,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보다 나보다 어린 동생들과 영어로 경쟁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개강날짜가 다가왔고, 전공 수업을 들어갔는데, 대다수가 해외에서 적어도 10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자들이었다. 나만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낙오자가 되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오후 하룻길에 외교원의 플래카드가 보였다. 집에 오자마자 외교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강의를 등록했다. 등록하면서 엄청난 망설임이던, 일단 마음먹었으니 시작해보기로 했다. 겨울방학 동안에도 외교원에서 하는 문법&작문 수업을 들으면서 하루 10시간 넘게 영어공부를 했는데도 부족한 것만 같아서, 학교 수업도 한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영어수업으로 바꿨다. 그때의 나는 영어에 대해 절박했고, 간절했다. 외교원의 강의를 무리해서 아침 8시에 진행되는 level2 강의를 신청했다. 버스를 타고 수업 시간에 맞게 가려면 5시30분에는 일어나야 했다. 겨우겨우 눈을 떠도 쏟아지는 졸음은 이겨낼 방법이 없어보였다. 그때 내 눈을 뜨게 했던 말이 있다. 꽤 유명한 토익강사가 했던 말인데 'Success and rest don't sleep together.' 즉, 쉴 것 다 쉬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잠을 깨기 위해 생각한 방법이 좋아하는 미국드라마 하나를 택해서, 등교준비를 하는 동안 내내 틀어두었다. 외교원에 가서는 원어민 선생님에게 영어를 잘하고 싶으니, 대화중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올바른 표현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한 기간이 끝났다. 장학금 선발 시 토익점수가 반영되는 학교 선발기준이 있어서, 처음으로 토익 시험을 보았는데 토익점수가 705점이 나왔다. 토의 강의라고는 1학년 때 교양수업인 토익영어 밖에 수강한 적이 없었는데 점수가 나쁘지 않았다. 겨울방학 동안 문법을 익혔고, 회화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했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문장구조 등을 생각해야만 했기 때문에, 외교원에서 들었던 수업들이 토익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한 학기가 넘는 기간 동안 외교원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점, 얻은 점이 많았다. 우선은 영어 실력이다. 다들 회화수업을 들으면서 발음도 틀리고, 표현도 잘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던 오기만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교원 수업은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들 배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망설임 필요가 없다. 학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발탁된 원어민 선생님들이 바로잡아 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나도 단어암기로 말하다가, 미드나 영화에서 나오는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조금씩 변형을 주어 말을 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메모해 두었다가 사용해보기도 했다. 잘 모르는 표현은 적어두었다가 수업이 끝나고 물어보고 외우고를 반복했다.

두 번째는 회화 수업동안 자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아침 8시에 영어수업을 듣기 위해 나와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보며 늘 자극을 받았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한 학기동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남들보다 하루를 더 바빠, 부지런히,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어, 그 다음 학기에는 4.3/4.3이라는 학점과 900점 정도의 토익 점수를 얻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회화 수업은 듣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는 학교에서 주는 영어우수 장학금, 전액장학금 등을 꾸준히 받게 되어서 이제는 내 공부에 더욱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외교원을 통해 간절함을 가지고 하루의 시작을 영어로 시작했기에 영어, 학점, 장학금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점이 내가 외교원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다. '영어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해주고 싶다. 'You don't have to be great to start, but you have to start now to be great.'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위해 지금 위대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위대해지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영어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바로 일단 시작하라고 말이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10월 31일자 5면의 김치완 교수의 학술기고 사진설명이 '모리츠 코르넬리스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 1898-1972)의 <Drawing Hands(1948)>'가 아니라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22첩 1면 제주도<자료: 규장각>'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

